

당선소감

정말 기뻐요

훌륭한 발명가가 되겠어요

-『정말 기뻐요.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심사위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명.....○
-가(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최우수상에 뽑힌 6명 학생의 한결같은 소감이다. 당선.....○
-작품 못지않게 정성을 다 해 써 내려간 당선 소감을 통해 우리는 발명 한국의 밝은.....○
-내일을 엿볼 수 있다.○

■ 국민학생부(작문부문) ■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1백만 어린이 생각하며 연구

길진필

〈전북 군산중앙국교 6학년〉



옛 저녁, 바닷물이 한 물져 밀려오는 꿈과 함께 가져다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읍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도 기쁨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제 조그만 작품을 좋게 보아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학주임 선생님과 함께 분필 가루 먼지 수를 세어 보면 일이 새삼스럽게 생각됩니다. 우리 교실에서 분필 가루 먼지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칠판은 아버지께서 공부하시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분필공해에 시달리는 100만의 나와 같은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조그만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 큰 상을 받고 발명가가 되겠다고 더욱 굳게 다짐하였답니다.

■ 국민학생부(작문부문) ■

국민학교 6년중 가장 큰 기쁨

이 기쁨 간직하고 탐구심 기를터

정윤숙

〈충남 당진 합덕국교 6학년〉

지난 11월 13일. 점심 시간에 선생님께서 급히 들어



오시더니 칠판에 “정 윤숙. 발명작문 현상모집에 최우수 입상!” 이라고 크게 쓰시고 빙그레 웃으시자 교실은 온통 박수소리로 가득찼고, 벽찬 감격에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읍니다.

지난 여름, 목욕탕에서 손을 씻으려고 비누를 집었을 때 비누각에 물이 고여 있어 비누가 물렁 물렁한 것이 거품도 안나고 빨리 닦아 없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하면 물이 고이지 않는 비누각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이 전국 최우수로 입상되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플레밍이 하찮은 곰팡이를 보고 기적의 약 페니실린을 발명했듯이, 나도 이제부터 내 주위를 더욱 관심있게 살펴 보고 탐구하는 마음을 가져 훌륭한 발명가가 되어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겠읍니다.

저를 기쁘게 해준 한국발명특허협회와 저를 뽑아준 심사위원 선생님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상은 국민학교 6년동안중 가장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 국민학생부(만화부문) ■

과학적 지식은 인류의 행복

틈만나면 상상의 나라를 펴고

이선

〈전북 임실 오수국교 5학년〉

나는 틈만 나면 상상의 나라를 펴고 미래의 세계를 마음껏 날아다닌다.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낙원에서 모든 사람



들이 아무 걱정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닐까?

모든 과학적 지식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따라서 전쟁과 질병은 사라진지 오래된 세상이 어서 왔으면...

오늘도 끝없는 상상의 세계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뜻밖의 입상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의 작은 꿈을 귀엽게 보아주신 심사위원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꿈이 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더욱 열심히 그려보겠다.

■ 중학생부(작문부문) ■

작은 노벨상의 교훈
호기심에서 발동한 탐구의 결실

이 은 희

〈부산 중앙여중 2학년〉



“은희야, 축하한다.”라는 선생님의 흥분되신 목소리와 함께 들려온 당선소식! 너무나 뜻밖에 날아온 영광에 나는 잠시 귀를 의심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환하신 미소와 선생님의 흐뭇한

신 표정은 모두가 나를 축하해주는 메세지 같았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고생하며 탐구하고 연구한 일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또 나의 작은 의문들을 스스로 밝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나의 가슴에 영광을 안겨주신 심사위원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면 과학 분야를 더욱 자세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에는 더욱 더 과학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탐구하는 태도를 길러야겠다.

나의 호기심에서 발동된 탐구에 의해 얻어진 최우수상! 아니 작은 노벨상!

나는 이 작은 노벨상보다 더 큰 노벨상을 받기 위하여 과학의 세계에 더욱 의문을 가지고 탐구할 생각이다.

만약 내가 커서 진짜 노벨상을 받는다해도 1985년의 작은 노벨상은 잊지 못하리라 생각된다.

■ 중학생부(작문부문) ■

아직도 꿈이 아닌가 의심
노력하면 된다는 진리 깨달아

김 정 대

〈경북 군위 효령중 2학년〉



어제 학교에서 수상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꿈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갑니다. 집에 달려와서 부모님께 그 소식을 알려드리자 처음에는 멧적은 표정을 지으셨지만 사실을 아시고는 제손을 잡고 기뻐하셨습니다. 국민학교때부터 가끔 작문대회에서 입상을 했지만 이번처럼 큰 상은 처음입니다.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출품을 했지만 최우수상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출품하기까지 지도해 주신 국어 선생님과 과학 선생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를 더욱 자주 개최해서 과학한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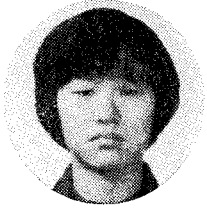
이번 일로 노력하면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저의 꿈을 향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중학생부(만화부문) ■

취미로 그린 그림이 영광을
앞으로 더 좋은 그림 그릴터

윤 경 란

〈충남 천안 복자여중 3학년〉



취미로 그린 그림이 가장 우수한 상을 받다니 지금도 꿈을 꾸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한순간 꿈인가 하고 멧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손등을 꼬집어보고 현실이란 것을 알았지요. 부모님 역시 믿지 않으시더군요. 코흘리개가 상을 받았다고요.

앞으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기쁨을 주신 주님, 저를 지도해 주신 저희 학교 임상순 선생님을 비롯하여 저를 귀여워해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심사위원 선생님 그밖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웃>